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2 권 5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미사성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집회 3,2-6.12-14 화답송 ◎주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뜨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하옵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 떠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 ○주 만군의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이소서.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		▶제 2 독서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복음 루카 2,41-52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 월 30 일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 월 6 일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 월 13 일	이 클라라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 월 20 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 월 27 일	이 클라라	이 바오로	성인복사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2 월 23 일	\$ 427.00		\$ 80.00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새해 미사 일정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 월 1 일 오전 9 시 (한, 영, 서)

Gospel Competition: 신약 4 대복음 필사 대회

성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산클레멘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Gospel Competition (4 대복음 필사)' 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부사항 문의: 성당사무실(661-871-9190).

공 동 체 소 식

주일학교: 주일 오전 8-9 시

어린이 교실이 친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Ms. Luna) 의 지도 하에, 주일 미사시간 (오전 8-9 시) 동안 성경말씀 찬송 등을 배우며, 영적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 박 마가렛 (총구역장).

공동체 임원회의 : 1/8 (화) 저녁 7 시

2013 년도 첫 한인공동체 임원회의는 1 월 8 일 저녁 7 시에 있습니다.

성체조배: 1/10 (목) 저녁 6 시 30 분 (6 시 저녁미사 후)

성체조배는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 시 30 분 (6 시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1/20 (주일) 오전 8 시 주일미사 후

소공동체 모임은 매월 셋째 주일, 주일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탄전야 미사 행사에 참여 및 봉사해주신 모든 교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말씀의 이삭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박대성 바오로 | 한국화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도 했지만, 또래들의 놀림과 돌팔매를 피하고, 어른들의 멸시와 동정어린 시선을 피하는 데 그림만큼 좋은 도피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언제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척들이 먼 곳에서 오면 먹을 것도 변변하지 않고, 집도 비좁았지만, 당연히 더불어 먹고 자며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나눴던 모습이 늘 훈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한국의 미풍양속이고, 우리 피에 흐르는 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저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눔과 사귀기를 통해 우리 안에 끈끈하게 흐르는 공동체성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하느님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확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현대미술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그 답을 찾고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곳저곳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현대미술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짐을 챙겨 한국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경주에서 15 년 동안 불국사를 중심으로 많은 그림을 그렸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 조상의 놀라운 철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토착화된 신앙심의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고, 많은 가르침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 깊숙이에서 큰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던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쳐듭니다. 아마도 하느님이 때가 되었다며 제 의식을 일깨우는 듯 합니다. 한국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는 성모님과 성가정,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성인들의 신앙생활을 화폭에 담고 싶어 인물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 계시니 당신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 보게 하신다." (집회 1,8-10)

완고한 제 마음을 녹이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넘어지더라고 그 분 앞에 사랑받는 자녀임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머물고 귀기울이는 노력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 지내온 날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은 제가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리에서 당신이 보여주실 섭리의 길을 발견하도록 기다리며 계신다고 느낍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은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계획과 하느님 나라에서 내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복자 존 헨리 뉴먼-

<서울주보에서>